바이커 集合住宅과 그 歷史的 意味에 관한 연구

崔 王 惇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전임강사)

1. 서론

1960년대 중반 이후 서구에서 대단위 집합주택의 건설은 현저하게 퇴조한다. 물론 이 시기에 이르러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주택이 점차 잉여공급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그보다는 많은 경우 획일적이고 비인간적인 환경의 창조, 커뮤니티의 부재, 파괴행위와 범죄의 만연 등으로 '옛 슬럼을 대체하는 새로운 슬럼의 창조'[1]로 비난을 받으며 총체적인 실패로 규정되기 시작한 탓이 크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미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모더니즘의 교의를 과신하고 인간의 행위와 환경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시한 건축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건축과 사회와의 상관성, 혹은 건축의 사회적 척도를 규명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순박한 건축결정론으로 부정되거나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건축가의 역할과 책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더니즘적 패러다임에서의 재개발과 주거공급이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에 등장한 영국의 바이커 집합주택 재개발(Byker Housing Redevelopment)이 가지는 집합주택 역사에서의 시대적 의미를 규명하고 참여자 건축의 좋은 예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영국이라는 지역에 한정되나 대단위 재개발과 공영주택의 공급을 두고 노정되는 건축계 내, 외부의 상황전개는 서구의 전반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2. 시대적 상황과 개념적 변화

20세기 초반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집합주택의 개괄적인 전개과정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2] 본 연구에서는 바이커 집합주택의 등장하는 1969년을 전후한 시대의 건축적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하기로 한다.

2차대전이 끝나면서 서구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민주적인 흐름이 등장한다. 이에 부응하여

1) 'New slums for old slums' - Taylor, N. (1967) *the Failure of Housing*, Architectural Review, Vol. CXLII, No. 849, pp341-359.

2) 자세한 내용은 최 왕돈(1997) "영국 고층아파트의 전개과정과 건축결정론적 해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 13, No. 3 pp105-122 참조.

영국정부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이념을 표방한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전쟁동안 파괴된 수많은 주택들을 복구하여 만성적인 주택의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 뿐 아니라 19세기에 지어진 대부분의 노동계층의 주택이 공간적으로, 구조적으로, 또 설비의 측면에서 열악한 슬럼으로 간주되어 시급한 물리적 개선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그후 1969년까지 400만호 이상의 공영주택이 건설되었으며 이는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59%를 차지했다.[3]

주거가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치다 보니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필연적으로 정체성의 상실, 인간의 소외, 거주자와 주거형태의 괴리와 그에 따른 주거환경의 부적절성, 지역적인 특성의 무시 등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건축적 측면에서 환원적이며 사회적으로 무반응적인 주거를 양산하였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4]

건축가들은 비로소 건축을 통하여 커뮤니티의 창조할 수 있다는 건축결정론적 시각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히려 과거에서부터 생명력을 유지하여 온 기존주거와 커뮤니티를 보존하고자 하였으며 그 주민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주거의 공급에서 단순히 주거기준의 충족이 아닌 사용자 혹은 소비자의 의견과 욕구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영국의 주택기준은 1918년의 튜더 월터스 보고서[5], 1944년의 더들리 보고서[6], 1961년의 파커 모리스 보고서[7]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왔다. 그러나 1960년대를 고비로 일방적인 주거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시도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디자인과 행위간의 지극히 단순한 인과관계를 전제한 사회-기능주의적 결정론과 필요-충족이론(need-fit theory)이 배격되기 시작하였으며 인간과 환경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거의 생산과 디자인에서 '공급'의 개념을 단순하고 독재적이며 위선적인 태도로 배격하게 된다. 새롭게 대두된 '소비자'의 개념이 공급보다는 '선택'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용자의 융통성 혹은 참여의 개념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용자의 요구 뿐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서 사용자들이 계획과정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주거의 재개발과 새로운 집합주택의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부터 있어왔던 것,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된다. 시간성과 지역성, 이 두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역의 전통과 풍습, 추억, 이미지, 계급 등이 포함되는 커뮤니티의 연속성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다. 이는 이미 1957년의 영(Young)과 윌멋(Willmot)의 런던 이스트 엔드(East End)의 노동계층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8] 그리고 건축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사회과학적 -특히 심리학- 개념이 등장한다. 도시계획가 및 건축가의 의도에 대한 사용자의 자유의지의 우위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60년대 중반 이후 다원주의 개념이 서구사회의 중심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된다. 전통적인 가족개념의 변화와 가족구성의 다양화, 소수민족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문화 및 문화적 상대주의, 더욱 세분화된 사회경제적 계층의 등장이 그것이다. 주거문제에 있어서도 인종적 게토(ghetto), 노인, 장애자, 편부모가정, 주거부정자 등으로 특화된 소수집단이 등장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들 집단의 주거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한다. 즉, 사회의 다원적인 요구를 인정하고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

3) Glendinning, M. & Muthesius, S.(1994) *Tower Block*, p1.
4) Rowe, P., *Modernity and Housing*, p218.
5) *Tudor Walters Report of the Committee to consider building construction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dwellings for the working classes*, 1918.
6) *Dudley Report(Design of Dwellings)*, 1944.
7) *Parker Morris Report(Homes for Today and Tomorrow)*, 1961.
8) Young, M. & Willmott, P., *Family and Kinship in East London*, 1957 참조.

깊은 이해가 요구된 것이다. 그 중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기존의 형태와 기능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알렉산더(C. Alexander)의 연구가 특기할 만하다.[9] 그와 함께 사용자의 역할과 요구조건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인류학과 환경심리적 접근이 건축적 논의에 편입된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다양한 디자인 이론이 등장한다. 소비자 행태연구, 디자인 방법론, 하브라켄(Habraken)류의 연구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로우(Rowe)에 따르면 이러한 시기에 주거문제에 대한 모더니즘적인 이해가 한계상황에 이르렀으며 새로운 주거문제의 대안이 두가지로 모색되기 시작한다. 지역단위의 결정과 주거의 공급, 건축의 표현적 의미와 개별성의 회복이 그것이다.[10] 바이커 집합주택은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사회적 다원주의와 커뮤니티의 표현적 요구를 건축적으로 구체화한 좋은 보기가 되고 있다.

3. 바이커 집합주택의 건설

3-1. 역사적 개관

본래 이 바이커 지역은 영국 북서부의 뉴카슬(Newcastle-upon-Tyne)의 중심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다. 17세기 이후 로손(Lawson)家가 소유하다가 19세기에 접어들어 뉴카슬시의 도시 팽창과 인근지역의 광산, 조선업 등의 중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개발업자가 인수하여 노동자를 위한 고밀도 1, 2층 테라스하우스를 건설하였다. 그 결과 약 18,000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노동자 주택단지가 되었다. 이는 영국 전역에 걸쳐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커뮤니티의 동질성을 강하게 가지고 누대에 걸쳐 살아오면서 인간적 유대로 뭉쳐진 전형적인 노동계층의 주거지였다.[11]

전술한 바와 같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당시의 지배적인 도그마였던 슬럼의 일소와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대적인 과제로 등장하면서 이곳도 필연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이 지역내의 에이커 당 120명을 상회하는 심각한 과밀과[12] 전근대적인 주거설비에[13]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51년 바이커 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재개발계획이 수립된다. 그 계획의 핵심은 밀도를 에이커 당 80인 이하로 낮추고 현대적인 주거설비를 갖춘 새로운 임대주거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타인江 서쪽의 라이 힐(Rye Hill) 및 엘직(Elswick) 지역의 더욱 열악한 주거단지에도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1959년에 재개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시작되어 1963년에 철거와 재개발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령이 결정된다. 이후 60년대 중반에서 1979년까지 계속적인 철거작업이 진행되었다. 물론 그동안 뉴카슬시에 영국 최초의 계획 전담부서가 신설되기도 하고, 또 시대적인 조류

9) Alexander, C., *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 1964 등.

10) Rowe, P., *Ibid.*, p227-230
전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상위기관의 통제를 탈피하고 지역 혹은 동네에 자치성을 부여한다; 추상적, 관습적인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아닌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용자 집단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요구사항을 표현한다; 일체화된 동질집단이 아닌 다양한 사회경제적 사용자 집단을 설정하여 계획한다; 주거공급자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분법으로 나누어지기보다는 다양한 비정부 혹은 준정부단체가 개입하여 공동적인 책임을 맡는다.
후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를 정의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가에 의해 지역의 구법이나 주거습관 등의 사회적 요소를 반영한다; 역사적 맥락과 건축적 전통을 강조한다;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주거의 의미를 재정립한다.

11) 그 생활에 대한 묘사는 London의 East End 노동계층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Young, M. & Willmott, P. (1957) *Family and Kinship in East London*, 참조.

12) Rowe, P. *Ibid.*, p233. 1953년의 시의 의료, 위생 담당관의 보고에 의하면 뉴카슬에서 10,000호의 주거가 실제로 거주에 부적당하고 바이커 지역내에서는 1,175호가 그에 해당했다.

13) Rowe, P., *op. cit.*, 1951년 센서스에 의하면 뉴카슬 시 전체 가구의 33%가 욕조가 없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단지 59%의 가구만이 기본적인 주택설비-고정식 욕조, 상수도, 화장실, 부엌개수대, 취사용 스토브-를 갖추고 있었다.

의 영향으로 뉴카슬의 주거정책은 급격하게 변화한다. 초기의 전면재개발(renewal)에서 탈피하여 환경개선과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극히 열악한 기존 주거의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여 주거의 재생(revitalization)정책은 곧 전면재개발로 환원된다.

1968년 랄프 어스킨이 바이커 재개발의 계획책임을 맡으면서 비로소 새로운 바이커 계획이 수립된다. 바이커의 건설은 총 6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970년에서 75년까지가 1 - 5단계로 파일럿 주택에 이어 고층주거가 건설되고 후에 저층주거가 건설되었다.[14] 그리고 1982년까지의 마지막 단계에는 던 테라스(Dunn Terrace)와 에이원데일(Awondale) 지역에 주로 노인층을 위한 주거가 건설되었다.

3.2 건축계획의 개요

이 지역의 전체면적은 81헥타이며 그중 주거가 19%이다. 밀도는 1에이커당 100명(헥타당 237명), 30세대이다. 총 가구수는 약 2,000가구로 1가구당 1명에서 6명에 이르기까지 약 6,300명이 거주한다. 편의시설로서는 여가를 위한 오픈 스페이스, 공중목욕탕, 교회, YWCA, 학교, 노인동,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클럽 등이 있다. 그리고 지하철역과 쇼핑지역이 인접하고 있다.

전체 구성은 8층 높이의 고층주거와 테라스하우스로 구성된 저층주거로 나눌 수있다. 고층부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로서 바이커 월(Byker Wall)로 알려진 블록이다. 고속도로로 예정된 도로부지를 따라[15] 파도형태 로 배치하여 북쪽의 간선도로 및 전철로부터의 소음과 북풍을 막는 역할을 함으로써 단지내에 양호한 微氣候를 창조한다(그림 1). 따라서 부엌, 계단, 욕실 등이 북쪽에 위치하고 개구부가 최소화된다. 그리고 다양한 색채와 패턴의 벽돌벽이 구성되어 각 주거의 개별성이 강조되었다. 남쪽으로는 밝고 다양한 색조와 목재, 합판, 함석 등의 재료로 발코니, 복도, 난간, 창문틀 등을 구성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전체 매스를 분절하여 인간적인 스케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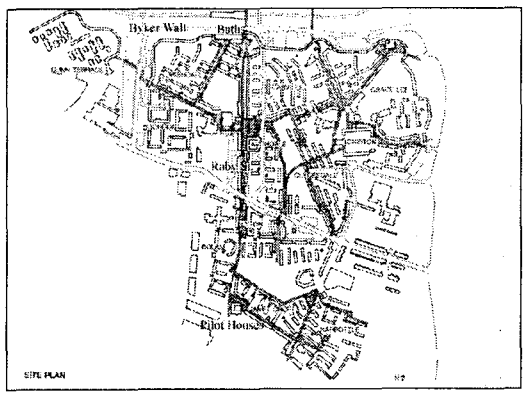

그림1. Byker 집합주택의 배치도

여기서 남쪽의 경사면을 따라 중층의 연결부를 거쳐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테라스 하우스로 이어진다(그림 2). 이 테라스하우스는 타인江과 뉴카슬 시내를 굽어보며 일조와 전망의 최대효과를 얻고자 면밀하게 구성되었다. 전체

그림2. 저층 테라스하우스

14) 1단계: Janet Square의 파이럿 주택, 2단계: Grace Street의 212세대와 165세대, 3단계: Kendall Street의 214세대, 4단계: Grace Street의 저층주택, 5단계: Gordon Road의 239세대, 6단계: Dunn Terrace의 264세대와 Awondale Road의 135세대.

15) 이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취소되고 대신 이곳에 전철-뉴카슬 메트로-가 건설되었다.

가 2층 높이로 전통적인 영국의 주거형태를 반영하여 아래층에 공적인 공간, 윗층에 사적인 공간이 배치되었다. 재료는 벽돌과 목재구조재, 합판 등으로 구성된다. 각 주거가 각각의 정원을 가지며 발코니, 현관, 퍼골라 등이 인근의 오픈 스페이스로 확장되어 일체감을 이룬다.

3.3 사용자 참여 건축의 과정

어스킨이 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표방한 계획의 대원칙은 "바이커 주민을 위한 바이커 계획(Byker for Byker People)"이었다. 따라서 그 계획과정은 건축가와 건축주-뉴카슬시 건축위원회-뿐 아니라 사용자가 함께 협의하고 결론을 도출해가며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권리가 가장 강조되는, 사용자의 참여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가 가장 먼저 이 지역에 내재한 사회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그의 맏딸 제인을 이곳에 이사하게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하면서 이 커뮤니티를 자세히 파악하고 나아가 이 커뮤니티와 외부와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의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접근과 병행하여 여러 가지의 질문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곧 건축주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어스킨은 바이커 지역의 사용자, 외부의 방문자, 마지막으로 건축주의 순으로 건축적 고려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16]

여기서 몇가지 원칙으로 설정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협조체제을 통하여 통합적인 주거환경을 창출한다. 둘째, 기존 동네의 가치있는 전통과 특징, 그리고 인근지역 및 도심과의 관계를 가급적 유지한다. 세째, 바이커 지역의 기존 거주자들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가족의 연대와 이웃 관계 및 삶의 형태를 깨뜨리지 않고 주민들을 재입주하게 한다. 네째, 부지의 물리적인 성격, 특히 남향 경사면, 전망, 일조 등을 최대한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각각의 주택群의 개별성이 원활하게 인지될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한다.[17]

설계가 시작되면서 곧 부지내의 옛 장의사 건물에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작은 사무소가 들어섰다. 이는 열린 사무소를 표방하며 분실물 센터, 어린이 미술교실, 비공식적인 커뮤니티 센터를 겸하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다양한 모임이 여기서 열리게 되고 주민들은 시청의 높은 문턱보다는 이곳을 훨씬 선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스웨덴에 사무소를 두고 있던 어스킨을 대신하여 그의 파트너인 버논 그레이시(Vernon Gracie)와 로저 틸럿슨(Roger Tillotson)이 바로 윗층에 설계사무소를 개설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사용자인 바이커 주민과의 협조 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계획의 초기 단계에 부지의 남동부 지역에 46채의 파일럿 주택이 건설되었다.[18] 이 주택들은 나즈막한 테라스 하우스가 중정을 부분적으로 둘러싸면서 공간적 다양성과 보행자 구역을 제공하는, 바이커 주택의 기본적인 배치개념이 된다. 그 과정에서 건축가와 미래의 사용자들 사이에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전에 건축가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바이커 주민들의 동네에 대한 강한 애착심과 커뮤니티 내의 계급의 위계가 존재한다. 둘째, 주민들은 그들의 기존 주택과 가로가 단지 현대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주택단지를 원한다. 그렇지만 이웃 사람들을 쉽게 만나곤 하던 모퉁이 가게, 선술집, 세탁소, 공동목욕탕 등 옛 바이커의 많은 모습들은 그대로 유지

16) Egelius, M. *Housing and Human Needs: the work of Ralph Erskine* Mikellides, B. ed. Architecture for People, Holt, Rinehart & Winston, N.Y. 1980. p141.

17) Erskine, *Memorandum on the Byker Redevelopment Project,* Housing Committee, City of Newcastle-upon-Tyne, 1968, p3.

18) 이는 랄프 어스킨의 스웨덴 주택 - Brittgarden (1959-62), Esperanza(1968-70) 및 영국 뉴마켓의 Studlands Park(1970)주택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되기를 바란다. 세째, 시당국이 제안한 전체 세대수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견이 강하다. 네째, 단지의 동선처리, 식재, 놀이터의 기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지대하다. 다섯째, 주민들은 50년대 이후에 반복되어온 무수한 논의와 약속 대신 재개발사업을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거의 모든 주민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위치, 평면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특히 부엌, 식당, 거실이 일체화된 오픈 플랜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옛 이웃들이 그들 주위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파일럿 주택에서 나타난 지저분한 뒷골목의 개념과 쉽게 낙서에 노출되는 짙은 색조의 벽돌 사용에 대해서 비판적이다.[19]

이러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매력적인 물리적 환경의 창조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 교육적 역할이 증가하게 되었다. 원활한 주민과의 협의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계획의 모든 가능성을 이해하여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설비와 주거기준은 주민들에게 낯선 것이었으므로 파이럿 계획은 새로운 주거의 사용에 대한 유용한 교육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입주전까지 모든 주민은 적어도 한번 이상 건축가를 만나도록 초청되었으며 여기서 새로운 주택의 위치, 평면, 설비 등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이는 그들에게 익숙했던 빅토리아 양식의 벽돌조 테라스 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생소한 환경이 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사용자 참여의 중요한 목적 - 즉,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새롭게 제안된 환경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수반되었다.

각 단계의 건설이 시작되면서 각각의 단위주거들은 완성되기 6개월 전에 할당되어 거주자들이 원활한 이주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배려하였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단위주거의 형태와 위치, 따라서 이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주로 대형 액소노메트릭을 통해 각각의 단위주거의 위치를 보여주고 최종 선택에 이르기까지 10일간의 여유를 주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보다 신중한 선택을 위하여 각각 12호씩을 순차적으로 할당하였다. 놀이터를 비롯한 여러 공용시설의 관리를 위한 작은 커뮤니티 모임들이 주선되었고, 1973년에는 이러한 커뮤니티 기능이 발전적으로 심화되어 단지내의 조경을 위한 "나무은행"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난간, 발코니, 다리, 창문틀 등 부분적으로 기능적이며 한편으로는 장식적인 건축디테일의 상당부분이 기성품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변화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특히 이 디테일에 대한 변화는 "인간이 소유해 가는 과정의 은유"로서 작용하도록 의도하였다.[20] 더우기 정원가꾸기를 비롯한 외부환경의 관리의 自助的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주택소유자에게서나 가능한 책임의식을 임대자가 느낄 수 있게 하였다.

4. 바이커 집합주택의 역사적 의미

바이커 집합주택은 대부분의 대단위 공영주거단지 계획이 필연적으로 극심한 반달리즘과 슬럼화의 과정을 겪은 영국의 현실에서 계획이 시작된지 30년에 접어드는 오늘날까지 거의 유일하게 그로부터 자유로운 예로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우선 바이커 주택에서 몇가지의 사상적 계보를 추적할 수 있다. 먼저 하워드(Ebenezer Howard)에서 비롯한 가든 시티 운동(Garden City Movement)이다. 그 영향 아래 2차대전 이후 영국에 1972년까지 22개의 신도시가 지어졌으며, 도시적 기능과 전원적 기능의 적절한 조절을 의도한 바이커 집합주택의 스케일과 계획수법을 고려할 때 그러한 흐름과 무관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가든 시티의 이념이 근린단위에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Egelius, *Ibid*, p142.

20) Dunster, D., *Walled town,* Progressive Architecture Vol. 8, 1979, p67

다음으로 도시경관의 시각적 응집성과 조직화를 강조한 컬런(Gordon Cullen)의 타운스케이프(Townscape)의 영향이다. 비스타, 연속적 경관, 텍스쳐, 보행자 전용도로, 가로시설물 등의 효과적인 강조와 병치는 바이커 집합주택의 요소요소에 반영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이전에 그가 계획한 스웨덴의 바버라넨(Barberanen)과 브릿가르던(Brittgarden)의 집합주택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바이커 고유의 지역적 특성이 건축과 잘 대응하여 독특한 경관을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커 집합주택의 역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용자 참여를 표방한 최초의 대단위 스케일의 계획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려, 주거문제의 정의에서부터 계획의 진행과정, 단위주거의 위치와 평면의 결정, 주거의 할당에 이르기까지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작업을 이루어냈다. 물론 표피적인 전시효과의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건축디테일 및 재료의 선정에서 주민들의 자치적인 결정의 가능성을 남겨놓음으로써 대중의 건축이 되도록 하였다. 물리적, 즉물적 관점에서의 사용자(etic)가 아니고 기능적 관점의 사용자(emic)의 개념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계획하며 건축가와 사용자 사이의 인식의 벽을 없애고자 한 시도는 높이 평가하여야 하다.

둘째, 기존 커뮤니티에의 신중한 접근,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 적정한 마을 스케일의 구성, ad hoc 美學의 실험 등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건축의 방법론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전 수십년동안 서구의 집합주거의 건설과정에서 노정되어왔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인 해법의 제시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까지의 모더니즘 건축이 "계획을 통한 커뮤니티의 창조"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의 가치와 전통을 부정하고 전체주의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새롭게 창조된 환경에서 인간이 소외되는 결과를 빚고 말았던 것이다. 바이커 집합주택에서 제안되고 검증된 접근방법들은 오늘날 건축방법론의 교과서적인 원리로 재확인된다.

세째, 현대의 집합주거건축에 있어 모더니즘적 패러다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작품이다. 물론 어스킨의 바이커 집합주택이 모더니즘이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냐를 명쾌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며 일면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역사적 함의, 디테일에의 주목, 표면패턴 등을 볼 때 1940년대의 영국의 신경험주의(New Empiricism)에서 비롯한다는 견해가 있으며,[21] 사회적으로 도출된 형태가 사회와 커뮤니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를 신봉한다는 점에서 근대건축의 원칙에 여전히 충실하다. 그러나 절대성, 추상성, 일반성, 중심주의가 대표적인 모더니즘의 교의이며 1960년대 후반까지의 집합주거 건축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어온데 반해 바이커 집합주택의 계획과정과 그 최종결과물은 상대성, 구체성, 특수성, 지역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필연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론적 근거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그 출발점에 위치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랄프 어스킨의 바이커 집합주택과 그 주거사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바이커 집합주택은 사용자 참여가 성공적으로 구현된 대표적인 작품이며, 현대건축의 바람직한 방법론의 각론을 제시하고, 주거건축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온 것이 그 역사적 의미라 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참여는 바이커 집합주택에서의 소극적인 의미를 탈피하여 1970년대 이후의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건축, 혹은 自助주택의 구호로 확장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의미는 모더니즘적인 집

21) Stephens, S., *Imagery and Integration,* Progressive Architecture, Vol.8, 1979, p67.

합주거의 원리가 여전히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參 考 文 獻

1. Burnett, J. *A Social History of Housing* 1815-1970, Newton Abbot : David & Charles, 1978.
2. Collymore, Peter & Erskine, Ralph, *The Architecture of Ralph Erskine*, National Book Network, 1995.
3. Dunster, David, *Walled town,* Progressive Architecture, Vol.8, 1979.
4. Egelius, Mats, *Ralph Erskine, Architect*, Coronet Books, 1990.
5. Egelius, Mats, *Housing and Human Needs: the work of Ralph Erskine,* Mikellides, B. ed. Architecture for People, N.Y.: Holt, Rinehart & Winston, 1980.
6. Erskine, *Memorandum on the Byker Redevelopment Project,* Housing Committee, City of Newcastle-upon-Tyne, 1968
7. Glendinning, M. & Muthesius, S. (1994) *Tower Block*, New Haven: Yale Univ. Press
8. Ospina, Jose, *Housing Ourselves*, London: Hilary Shipman, 1987.
9. Rowe, Peter, *Modernity and Housing,* Cambridge, MA: MIT Press, 1993.
10. Stephens, S, *Imagery and Integration,* Progressive Architecture, Vol.8, 1979.
11. Taylor, N. *the Failure of Housing,* Architectural Review, Vol. CXLII, No. 849, pp341-359.
12. Young, M. & Willmott, P. *Family and Kinship in East London,* 1957.

The Byker Housing Redevelopment and Its Historical Meanings

Choi, Wangdon

ABSTRACT

The 1960s is a transitional era in the history of architecture. The Byker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well reflects this situation, and is a good example of materialization of social pluralism and expressional needs of a community. Therefore it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see its meanings in the history of mass housing in the Western countrie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It is the first large-scale project where the concept of user participation was sucessfully realized; It suggested various tools of desirable design methodology; It made a paradigmatic change from modernism to post-modernism in the history of contemporary mass housing projects.